

ii) 歸屬階層×職業

專門職, 管理職의 各各 86%, 87% 以上은 中上, 中下 및 上에 歸屬하고 있으며 다만 그 各各 14%, 13% 만이 下上, 下下로 自家判斷하고 있다.

表 10. 歸屬階層×職業 (實數)

	上	中上	中下	下上	下下	不明	計
專 門 職	4	16	25	7	—	—	52
管 理 職	5	25	33	6	3	—	72
事 務 職	1	13	37	29	10	—	90
販 賣 職	1	15	69	65	36	1	187
熟 練 職	—	2	12	17	14	—	45
非熟練職	—	2	21	29	34	—	86
無 職	5	11	42	43	42	—	143
計	16	84	239	196	139	1	675

結 語

이 調查研究는 하나의 pilot study에 不過한 것이므로 여기서 어떤 自信있는 結論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의 調查研究를 計劃하는데에 所要되는 假設의 定立에 參考할만한 몇가지 傾向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1) 被調查者들의 대부분이 한국 사회에 各種의 階層現象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 2)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도 대부분의 外國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이 中間階級の 肥大를 나타내고 있다.
- 3) 歸屬階層과 客觀的屬性 특히 學歷, 收入,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相關關係가 있는 것 같다.
- 4) 社會的地位의 要因으로는 막연한 것으로는 人格, 구체적인 것으로는 學歷을 重視하는 사람이 壓倒的으로 많다.

中間階層의 問題

高 永 復

※ 本 發表는 錄音이 없되어 要約으로서 代한다.

西歐社會에 있어서의 中間層의 形成過程은 舊中間層으로부터 新中間層으로의 轉換過程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資本主義 經濟가 畸型的으로 發達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中間層이 매우 曖昧한 樣相을 띄고 있다.

이 樣相의 一端을 알아 보기 위해 今年 七月에 梨大生 全員을 母集團으로 하여 父兄들의 職業調查를 行했던바 대략 (表1)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表 1)에서 보면 6.25 以前の 職業과 現業職과를 比較하여 中産層은 尤甚한 社會變動에도 不拘하고 대체로 커다란 變遷을 보고 있지 않다는 結論이 나온다. 그리고 도리어 企業主나 商業人 같은 舊中間層의 職業業種이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편 이들의 意識調査를 行했던바, 意外에도 美國의 경우와는 顯著히 다른 結果를 보였다. 이 調査에 있어서는 美國의 社會學者 센터스(Centers R)의 質問表를 若干 修正하여 使用한 것인데, 그 結果가 (表 2)에 나타나 있다.

이 表를 보면 韓國 中産層의 子女들이 保守와 急進의 階級意識을 露呈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 階層差에서 오는 意識差를 測定하는 尺度가 保守急進의 次元에서가 아니라 다른 次元을 使用하여야 된다는 것을 밝혀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나의 假說로서 論者는 體制肯定的——體制否定的, 改良的——革命的의 그 次元을 使用함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參考삼아 이 調査에서 얻은 몇가지 結果를 다음의 (表 3), (表 4), (表 5)를 通하여 公開한다.

(表 3)

大學別		1	2	3	4	5	6	7	8	9	Total
Q. No.	點數										
	20										
	19										
	18					1					1
	17					1					3
	16	1		1			3	3		1	22
	(42)	12	3			6	7	6	4	2	56
	態	15	11	2	3	8	13	13	7	12	116
	度	13	15	9	6	12	22	13	15	13	153
	點	12	21	7	12	9	13	5	19	9	136
	數	11	26	8	8	9	15	3	9	2	89
		10	18	7	6	5	3	2	3	1	37
		9	7	1	6	2		1	1	1	8
	8	1	1	1							
	7										
	6										
	5										
	4										
	3										
	2										
	1										
	計	168	102	36	41	53	76	46	58	41	

(表 1)

父親의 6.25 前 職業別로 본 現在職業(父親의)

父親의 6.25 前 職業 父親의 現在職業	醫 師	大 學 教 授	土 木 建 築 家	會 社 社 長	大 會 社 重 役	高 級 公 務 員	小 企 業 主	銀 行 員	中 高 校 教 師	會 社 幹 部	國 軍 將 校	一 般 公 務 員	事 務 員	都 賣 業 主	運 輸 業 者	釀 造 業 者	商 業	工 業
Total	27	12	18	17	15	18	61	29	20	24	12	77	45	11	10	10	47	10
醫 師	88.9																	
大 學 教 授		75.0							15.0									
土 木 建 築 家			72.27															
會 社 社 長				52.9									20.0				12.8	
大 會 社 重 役					80.0								5.2				6.4	20.0
高 級 公 務 員						33.3							9.1					
小 企 業 主							59.0			12.5			15.6					
銀 行 員								31.0									21.3	20
中 高 校 教 師									50.0									
會 社 幹 部										37.5			22.2					
國 軍 將 校											8.3							
一 般 公 務 員												40.3						
事 務 員													11.1					
都 賣 業 主														45.5				
운수업者															80.0			
양조업자																60.0		
商 業																	17.2	
工 業																		10.0
鑛 業																		



(表 4) 主觀的 評價와 父親의 教育程度

教育程度	主觀的 評價						無應答	合計
	上의上	上의下	中의上	中의下	下의上	下의下		
大學院, 그以上 卒業者	31.3	8.6	4.9	3.0			33.3	(36) 5.8
4年制大學 卒業者	25.0	48.6	22.5	14.9	20.0	33.3	33.3	(151) 24.3
初紙大, 舊制專門 졸업	25.0	22.8	36.2	27.7	20.0	66.7		(204) 32.9
高等學校 卒業者	6.3	14.3	22.9	25.7	20.0			(135) 21.7
中學校 卒業者	12.5	5.7	11.6	21.8	40.0			(79) 12.7
國民學校 卒業者			1.4	4.0			33.3	(11) 1.8
無 就 學 者			0.5	3.0				(5) 0.8
合 計	(16) 100%	(70) 100.0	(423) 100.0	(101) 100.1	(5) 100.0	(3) 100.0	(3) 99.9	(621) 100.0

(表 5) 主觀的 評價와 客觀的 評價

客觀的	主觀的	上의上	上의下	中의上	中의下	下의上	下의下	無應答	合計
上 의 上	(24-28)	37.5	38.6	8.3	1.0				(69) 11.1
上 의 下	(20-24)	37.5	50.0	49.6	32.7			66.7	(286) 46.1
中 의 上	(16-20)	18.7	11.4	38.3	48.5	60	66.7	33.3	(228) 36.7
中 의 下	(12-16)	6.3		3.8	16.8	40	33.3		(39) 5.9
下 의 上	(8-12)				1.0				(1) 0.2
下 의 下	(8이하)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21) 100.0

結論으로서는 韓國의 中産層이 果然 韓國社會의 指導層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할 수 있는가의 問題에 答하여야 되겠지만, 現在의 우리 資料로서는 提示할 길이 없다. 밀즈(Mills, W.)는 中間層의 展望으로서 네가지의 可能性을 말했지만, 오히려 우리 나라의 中産層은 그 階級的 性格이 나타나지 않는 말하자면 形成途上에 있으므로, 그것을 適用하기에도 困難할 것 같다.

上層에도 同調하고 또 下層에도 同情하는 態度는 무엇을 意味할가. 아마도 그것은 民主主義와 民族主義를 同時에 止揚하여야 할 後進國特有的 時代的 使命을 中層階級이 바야흐로 呼吸하기 시작했다고 結論해도 좋을는지 모르겠다.

9月 29日 午前部

<司 會>

오늘 이 심포지움에서 다루어질 龍飛御天歌에 대한 綜合的인 檢討는 여러분께 配付하

여 드린 프로그램에 明示된 바와 같이 二部로 나누어 갖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龍歌가 대개 語學의 重要資料로만 取扱되어 왔고, 그의 文學的인 價値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第一部에서 우선 가져질 語學面에서의 龍歌에 대한 檢討는 이제까지의 研究結果를 總整理하는 批判의 바탕이 될 것이며, 第二部에서는 文學과 音樂의 面에서 考察하는 새로운 問題의 提起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의 이 심포지움은 매우 意義깊은 行事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第一部의 順序를 進行하기에 앞서 許雄教授께서 지금까지의 龍歌에 대한 研究業績을 綜合報告하여 주시겠습니다.

※ 綜合報告는 錄音關係로 省略함.

## 龍飛御天歌의 成立年代와 諸異本

姜 信 沆

標題의 問題는, 이미 1958 年에 「龍飛御天歌의 編纂經緯에 對하여」라는 題目으로 「文理大學報」(第 6 卷第 1 號, 서울大文理大, 1958. 2. 2)에 發表되었던 것이다.

世宗實錄 卷 108, 27 年 4 月 戊申(5 日)條의 記事는, 現存 萬曆本 龍飛天御歌(以下 龍歌라고 略稱함)의 序文(鄭麟趾作), 進箋文(權暉等)과 거의 같은 內容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① 世宗 27 年 4 月 5 日에, 權暉, 鄭麟趾, 安止等이 龍歌 10 卷을 製進하였다.

② 「歌用國言, 仍繁之詩, 以解其語」하야 所撰歌詩가 「總 125 章」이었다.

③ 「謹繕寫裝潢, 隨箋以聞」하니 「刊板以行」을 命하셨다.

④ 「庶繼雅頌之遺音, 被之管絃, 傳示罔極」하는 것이 「臣等之至願」라 하였다.

이로써 보면 上記 서 사람 손에 依하여 「國言」으로 된 125 章 10 卷의 龍歌가 世宗 27 年 4 月 5 日에 撰進되어 刊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로 因하여 「世宗 25 年 12 月에 新文字를 創制한 後, 純粹한 우리 노래를 이 새 글로 制作하여 보아, 이만하면 하는 自信을 얻은 後, 28 年에 訓民正音을 正式으로 公布하였다」라는 說까지 流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世宗 27 年 4 月 5 日(正統 10 年)日字로 되어 있는 記事들(實錄記事, 龍歌序, 進箋文)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面에서 疑問을 갖게 한다.

1. 龍歌編纂을 위한 資料蒐集은, 24 年 3 月 1 日부터 着手되었던 것은 事實이나, 上記한 27 年 4 月 5 日에 製進·刊行되었다는 記事에도 不拘하고, 27 年 4 月에는 龍歌가 刊行된 일이 없고 世宗 29 年 10 月에 가서야 刊行되었던 것이며,

2. 「所撰歌詩」가 「總 125 章」이었다고 하지만, 現存 古板本 龍歌의 序文과 跋文에는 「123 章」이라고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第 100 章 以下の 章次表示數字에 重複이나 混亂이 있어, 애당초부터 125 章으로 되어 있었는지 疑問을 갖게 하며,